



“꿈과 사랑을 키워가는 행복한 학교”

2023-66호(5월 30일)

가정통신문

안 성 중 학 교

<http://www.ansung.mh.kr>

55536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구량천로 147 ☎ 교무실 323-0115 ☎ 행정실 323-0279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5월31일 세계보건기구(WHO)가 담배가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임을 인식시키고, 담배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자 제정한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안내드립니다.

현재 담배회사는 청소년 대상 마케팅으로 캡슐담배, 가향담배(향기 첨가), 스누즈(티백을 입안에 물고 빨아먹는 담배), 아이코스, 릴 등의 가열 전자담배들을 출시하여 학생들의 담배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에 흡연이 청소년에 미치는 폐해에 대해 안내해드리니 지금 흡연 중이시면 사랑하는 자녀의 건강을 위해 금연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자녀들의 흡연 예방 및 금연을 위해 자녀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기의 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청소년기에 흡연을 시작하는 경우 정신적이나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이기에 담배 중 발암물질 및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중독성과 건강 위해의 심각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청소년보호법 제2조** 청소년 유해약물로 담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1. 흡연시작 연령이 어릴수록 암 발생 가능성 증가
-15세에 흡연을 시작한 경우가 25세에 흡연을 시작한 경우보다 60세에 이르러 폐암이 발병할 가능성이 3배 정도 높습니다.
2. 청소년 흡연자는 잠재적 성인흡연자로 평생 니코틴의존도를 증가시키는 원인



흡연을 하는 학생이 흡연을 하지 않는 학생에 비해 키가 평균 2.54cm 작다는 편



흡연이 체중 조절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으나 흡연이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는 없음



청소년에서의 흡연은 우울증과 상관이 있어, 자살에 영향을 미침

학교 건물은 운동장을 포함한 절대 금연구역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건물은 절대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접흡연과 3차흡연

간접흡연이란, 흡연자가 내뿜는 담배 연기와 담배가 타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이 들이마시므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간접흡연을 '강요된 흡연' 혹은 '강제적 흡연'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흡연을 할 때 발생하는 독성물질 중 가스 형태의 화학물질은 벽, 가구, 옷, 장난감, 집 먼지 등의 표면에 달라붙어 흡연이 끝난 이후에도 실내 환경에서 장기간 흡연에 의한 오염물질이 배출될 수 있는데, 이를 **3차 간접흡연**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1차 흡연 흡연자 본인의 피해

- 백내장, 치매, 뇌졸중, 류마티스 관절염, 췌장염
- 폐암, 유방암, 신장암,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병
- 우울증, 만성스트레스, 정자 손상 등을 초래

2차 흡연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

- 우울증, 당뇨병, 고혈압, 동맥 손상
- 성대 손상, 유방암 등

3차 흡연 옷·벽면에 붙은 연기로 인한 피해

- 실내 유해물질과 결합 - 발암물질 생성
- 어린이, 유아, 태아에게 피해 집중
- 니코틴 중독, 태아 폐 발달 저해, 천식 등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담배 속 유해 물질과 사용 용도

담배에는 약 70종의 발암물질, 6000종 이상의 화학물질, 10만종 이상의 물질이 들어있고 중단할 시 금단증상이 생기며 중독성이 대마초보다 더 강한 마약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 물질	니코틴	타르	일산화탄소
특징/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독물질(금연실패의 원인) • 혈관수축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스팔트의 원료(끈적임) • 발암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기가스와 동일성분 • 각 조직에 산소공급 방해
유발 질병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말초 조직이 썩게 되는 버거씨질병	끈적이는 특성으로 전신에 달라붙어 식도암, 폐암 등 각종 암 및 치주염, 구강암, 입 냄새 유발	산소부족으로 두뇌활동저하, 뇌세포 손상, 폐질환, 노화

2023. 5. 30.

안 성 중 학 교 장 (관인생략)